우리 아이 인재로 키우는 법!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생각이 많아진다. 앞으로 저축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하며, 책도 좀 읽어서 좋은 본보기의 부모가 되고 싶을 것이다. 또한 자신은 일에 바빠 책을 손에 잡을 여유가 없었지만, 아이만큼은 '책 읽는 아이'로 자라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

부모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막상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책 읽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가' 라는 문제다. 부모가 평소 독서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평소 독서하는 습관이 있고, 심지어는 직업이 사서일지라도 자녀를 책 읽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것은 많은 부모의 비슷한 고민이다.

나 역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무렵, 부모로서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 그 영향력을 아이에게도 주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로 인해 2014년 어린이도서관에서 근무하던 때 '부모독서모임'을 만들었다. 그때 부모독서모임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한 결정적인 책이 바로『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었다. 이 모임은 부모들의 바람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이 되었고, 아이보다 책을 더 좋아하게 된 부모들의 독서모임은 현재까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부모독서모임 시작 이후 본격적으로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매일 책을 읽어주는 일을 혼자 하기 힘들어 배우자와 번갈아 가며 읽어주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아이에게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 효과를 먼저 본 것은 의외로 우리 부부였다. 처음 듣는 책 읽는 배우자의 목소리가 신선하게 느껴져 내심 놀랐다. 그러다 어느 날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다. 유난히 하루가 힘들었던 날 우리 부부는 "엄마 아빠는 오늘 너무 힘들어서 책을 못 읽겠어요. 오늘은 우리 아들이 대신 읽어주세요." 라며 아이에게 힘든 척 책을 내밀었다. 그러자 아이는 처음에는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소파에 기대있는 엄마 아빠를 쳐다보며 책을 펼쳐 읽어주기 시작했다. 글씨도 모르는 아이가 그 장면에 있는 글씨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읽어주는데 마치 기적이 일어났던 줄 놀랄 정도였다. 같은 책을 자주 반복해 읽어준 효과로 아이는 책을 아예 외운 것이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저녁에 책 읽어주기, 잠들기 전 동화책 읽어주기, 하루 30분 낭독회, 그림책 독서 모임 등 여러 가지 독서 활동을 이어갔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이른바 '가성비'가 높은 방법이 있다면 그중 하나는 독서일 것이다. 1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그마저도 부담된다면 이천시 관내 어디서든 대출증 하나만 있으면 좋은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가까이 있으니 관심의 손길만 뻗으면 된다. 책 읽는 아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기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하루 15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해도 가능할 수 있다면 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은 "책 읽어주는 부모가 책 읽는 아이를 만든다"는 서문으로 시작된다. 부모가 먼저 책을 읽는 습관을 바탕으로, 왜 책을 읽어주어야 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어주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읽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 짐 트렐리즈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책 읽어주던 잊지 못할 좋은 느낌을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매일 밤 책을 읽어주었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자녀를 '책 읽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장점을 접어두고라도 내가 이 책을 권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 부모를 떠올릴 때, 자신을 품에 안아 책을 읽어주던 부모의 온기를 기억한다면 이것은 아이가 살아가는 내내 든든한 정신적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많겠지만, 이만한 가성비가 있을까?『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은 바로 그 길을 안내하는 책이다.

"자녀교육에 요행은 없다."
그간 읽었던 많은 육아서에서 얻은 키워드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부모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여기서부터는 보너스! (책꼽문: 책에서 꼽은 문장)

"읽기는 교육의 중심에 있다. 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과목을 읽기를 통해 배운다. 학생이 수학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과학이나 사회 과목의 본문을 읽어낼 수 없다면, 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까? 읽기는 교육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장수를 위한 안전벨트라고 말할 수 있다.(중략) 읽기야말로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식들이다.(중략)

·많이 읽으면, 더 많이 알게 된다.
·많이 알면, 더 똑똑하게 자란다.
·똑똑하게 자랄수룩 학력도 높아진다.
·학력이 높을수록 학위를 더 많이 취득하고, 직장에 더 오래 다니게 된다. 따라서 평생 동안 더 많은 돈을 번다.
·자신의 학력과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도 높아지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
(p.39-40)

아이의 읽기 능력을 키우는 최선의 방법은 어릴 때부터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는 것이고, 이는 전 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p.49)

책읽어주기만큼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벽돌이 집을 짓는 기초 자재이듯, 단어는 학습의 기초 구조다. 사람의 뇌 속에 단어를 집어넣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눈'을 통하거나 '귀'를 통하는 길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눈으로 책을 읽게 되기까지는 최소한 몇 년이 지나야 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두뇌 훈련을 하기에 가장 빠른 길은 당연히 귀가 될 수밖에 없다.(p.51)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면 아이는 귀를 통해 머릿속에 소리.음절.어미.연음을 받아들여 단어를 형성한다. 그리하여 언젠가 그 단어를 읽게 되면 그것을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전쟁.고래.기관차와 같은 단어들을 이해하는 데는 배경 지식이 포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필요하다.(p.62)

어휘력을 기르는 데는 대화보다 독서가 유리하다. 대부분의 대화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평범하고 단순하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5천 단어를 기본 어휘라고 한다.(실제로 아이와 나누는 대화의 83%는 1천 단어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아이의 나이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금 사용하는 또 다른 5천 단어가 있으며, 이를 합친 1만 단어를 공통 어휘라고 한다. 이 공통 어휘 외에 '희귀 단어'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독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휘력의 궁극적인 힘은 1만 개의 공통 단어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희귀 단어를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p.67)